

정수일과 나와 학연을 맺게 된 것은 1985년 철쭉꽃이 화사하게 만발한 어느 봄날 그가 단국대 내 연구실로 찾아와서 지도교수를 맡아달라고 간청했을 때부터 비롯되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내가 번역한 《동서문화교류사》의 원저자 프랑케 교수는 말레이대학에서 사사한 스승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신라-이슬람 교류사를 전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자의반 타의반 지도교수를 맡으면서도 필리핀 국적을 가진 이 이방인이 과연 동서교류사에 관한 박사논문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프랑케 교수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프랑케는 현재 북경에 와있다고 하면서 그 이튿날 깨알처럼 쓴 중국어 편지를 써오지 않았는가. 나는 이 편지를 보고 학문적 대성의 기미를 간파했고, 지도한 결과 신라 서역교류사 연구로 단국대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에 취임한 것이다.

정수일이 자신의 한글이름을 '간수'로 한 것은 그의 투철한 동인의식東人意識의 발로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찍이 아랍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지바는 《제도로 및 제왕국지》(845)에서 '중국의 맨 끝, 간수 맞은편에 왕국이 있는데, 그곳이 황금의 나라 신라국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유럽·일본 학자들은 간수를 중국의 강도(江都, 揚州)로 비정하고 있지만, 선생은 강주(康州, 현 晋州)로 비정함으로써 유럽·일본 학자의 왜곡된 역사해석을 타파했다. 이는 그의 간수 지명고증이 그의 해박한 문헌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룩된 성사일 뿐 아니라 간수를 자신의 이름으로 채용할 만큼 역사의식이 투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생의 동서문화교류사 연구의 지상목적은 일본학자에 의해 왜곡 날조된 민족사를 바로 잡고 일본의 식민사관을 타파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실크로드 동서교통로는 오아시스 육로, 초원의 길(스텝로), 남해로 등 세 길이 있는데, 일본학자는 한결같이 이 세 길이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일본과 연결됐다는 '일본직결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을 은둔국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한 것은 일본학자의 식민사관에서 연유하고 있다. 그러나 선생은 아랍어로 '섬나라 신라' 국명을 명기한 이드리스의 세계 최초의 고지도(1154)를 발견하고 한국은 은둔국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임을 입증함으로써 일본학자의 왜곡된 허구설을 타파, 동서교통로의 한반도연장설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시대와 겨레의 소명을 인식한 초인적 문명교류사학자

김원모 _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이 글을 쓴 김원모는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문학석사·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한미관계사를 전공하고,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단국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저서로는 《근대한미교섭사》《한미수교백년사》《미국사연구서설》(공저), 《동서문화교류사》(번역) 《근대한국외교사연표》(사진으로 본 백년전의 한국) 《알렌의 일기》《근대한미관계사》《한미수교사》《한미외교관계100년사》《개화기 한미교섭관계사》 등이 있다.



선생의 선친이 7세의 어린 나이로 북간도에 이주 정착함에, 선생은 백두산 밑 조선족 집성촌 명천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에서 일본어 교육, 고급중학교에서 러시아어, 북경대학 동양학부에서 아랍어 전공, 졸업 후 이집트 국비유학으로 독일어 습득, 아프리카 모로코 대사관에서의 외교관 생활로 영어·스페인어·불어, 말레이어와 필리핀의 타갈로그어 등 10개 외국어에 능통하고, 금상첨화로 중국 고한자古漢字 해독력을 갖추었기에 선생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인이었다. 마르코 폴로의 어학력을 능가하는 어학의 천재성이 있었기에 동서교류사, 특히 아랍 서역관계사 연구에 도전할 수 있었다.

선생은 10년 전 고대문명교류사 원고를 탈고해서 한길사와 출판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었는데, 1996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되면서 출판이 중단되고 원고가 입력된 컴퓨터는 검찰에 압수되기에 이르렀다. 선생은 구속 후 재판정에서 고대문명교류사 원고만이라도 살려 학계에 남기고 싶다고 호소했다. 극형을 구형했던 담당검사도 선생의 이 같은 학문적 집념에 감복, 몰수된 컴퓨터 본체를 찾아서 원고출력정리를 허용,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원고출력 작업 끝에 회수할 수 있었다.

선생이 《왕오천축국전》의 역주를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10년 전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선생이 북경대학 동양학부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연 몰랐기 때문에 과연 고한문으로 기록된 혜초문서를 이해 접근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일종 부정적인 의려심을 가진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뜻이 좌절되고 말았다. 정수일이야말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시대의 한 지성인으로서, 남북 공히 대학교수로서, 분단비극의 한 체험자요 산 증인이며 그 희생자인 것이다. 그러기에 전향이나 미전향이나의 기로에 처한 선생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좌절하면 학문세계에서의 낙과落果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참담한 절망상태에 직면한 선생은 심기일전 동서교류학 정립에 헌신하기 위하여 마침내 전향을 결심했다. 전향만이 일편단심으로 기다리겠다는 부인 윤순희와 자신이 몸담았던 단국대학에 대한 속죄요, 보답의 길임을 확신하고 북한의 통일이념을 버리고 민족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전향한 것이다.

5년간 영어의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땅에 불모지대로 남아 있는 실크로드학을 정립하는 것이 자신에 부하된 시대와 역사, 조국과 겨레의 소명이라고 확신하고 원고집필을 강행했다. 발이나 겨우 뺄 정도의 좁은 감방에서 여름이면 볼펜의 심지가 녹아나는 찜통 같은 더위, 겨울이면 손발이 곱고 동상에 걸리는 강추위를 무릅쓰고, 방바닥에 책을 포개거나 물통을 얹어놓고 통케틀을 만들어 놓고 무려 2만5,000장의 원고를 집필한 것이다. 그것은 사마천司馬遷이 궁형을 당하고 옥중에서 만세불후의 사기史記를 저술했고, 손자孫子は 발의 근육을 도려내는 형을 받고 그 유명한 손자병법을 써냈고, 다산 정약용丁若鏞은 유배생활 중 방대한 저작을 남겼듯이 선생이 영어의 몸으로 방대한 원고를 집필한 것은 이 같은 역경극복의 정신이 투철했기에 가능했다. 선생이 숨막힐 듯한 좁은 독방에서 온갖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실로 천문학적인 방대한 원고집필을 강행했다는 것은 초인적 일대 성사가 아닐 수 없다.

선생은 2000년 8·15특사로 출소한 후 옥중 집필한 방대한 원고와 컴퓨터 출력원고를 정리하여 이븐바투타 여행기(상하), 실크로드학, 고대문명교류사 등 역저를 차례로 출판했다. 이는 미개척분야인 동서교류학을 처음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학문적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출판물을 완성하고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역주작업에 재도전한 결과, 이번엔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출간함으로써 100년 이래 역주본 출간의 숙원을 이룩하는 학문적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